

태풍 링링 대비 긴급점검회의

장수군, 한우랑 사과랑 축제 안전관리·농작물 관리 만전 당부

장수군은 4일 부군수실에서 유태희 부군수 주재로 각 실과부서장과 축제 대행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3호 태풍 링링의 한반도 상륙 예상에 따른 긴급 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화재·체육시설물 사전점검, ▲태풍대비 축제장 내 안전관리 대책 수립, ▲농축수산물 상륙 예상에 따른 긴급 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재·체육시설물 사전점검, ▲태풍대비 축제장 내 안전관리 대책 수립, ▲농축수산물 상륙 예상에 따른 긴급 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에할·점검, ▲태풍 영향권 진입 시 등산로 폐쇄 및 입산 통제시행, ▲재난예경보 방송 및 재난문자송출, ▲급경사지, 낙석, 토사유실 사전점검, ▲도로측구, 배수로등 취약시설물 점검 및 사전조치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제13호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기간 동안 태풍에 따른 인명 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제장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비상근무

수립을 통한 태풍 상황체계 및 보고체계를 마련했다.

유태희 부군수는 "태풍 대비는 아무리 강조하고 실천해도 과하지 않다"며 "전 공무원은 철저한 비상근무와 현장점검으로 지역주민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3호 태풍 링링은 대만해협을 지나며 세력이 강화되고 이번 주 주말쯤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혈관 숫자 알아야 건강해요”

무주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캠페인 30일까지 보건의료원, 반딧불축제장서

무주군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9월 한 달 간 '자기혈관 숫자알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

리 주간을 맞아 진행하는 것으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검사를 통해 혈관 숫자를 알아보고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중증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 방법 등에 관한 다양한 정

보도 제공한다.

금연상담, 영양교육 등 건강증진서비스도 병행할 계획으로 무주군보건의료원 1층을 비롯해 반딧불축제 기간(9.8.)에는 축제장 내 이동 건강체험장에서도 실시한다.

특히 가장 많은 건강 위험요인(흡연, 음주, 운동, 식사 등)을 가졌지만,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하는 3040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이해자 건강진진 팀장은 "3040세대 직장인이 퇴근 후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 술집, 편의점 등 생활시설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대 수칙 포스터 부착하고 홍보물을 배부해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라며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은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만큼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상 혈압수치는 120/80mmHg 미만, 공복혈당은 100mg/dl 미만, 콜레스테롤은 200mg/dl 미만이며 심뇌혈관질환 예방은 평소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해 무주군의 '자기혈관 숫자알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캠페인에 더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9월 한 달 간 '자기혈관 숫자알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안군,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진안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점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 전문가, 공무원, 유관기관, 시설물

관리자 등 10여명으로 민·관 합동현장 점검반을 꾸렸다.

또한 지난 3일 추석 명절을 전후로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안고용버스터미널, 진안고원시장, 흥삼한방약초센터, 인삼농협 수삼 판매

장을 대상으로 건축물, 가스, 전기, 소방 분야 등 전반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조치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흥기 안전재난과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생물다양성 탐사대작전

21~22일 설천면 반디랜드 일원

무주군은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설천면 반디랜드 일원에서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반딧불 생물다양성 탐사대작전(BioBlitz)"(이하 반딧불 생물다양성 탐사대작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반딧불 생물다양성 탐사대작전(주최 무주군, 주관 반디랜드)은 생태관광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위해 24시간 동안 생물전문가와 일반인들이 함께 지역 내에 모든 생물종을 찾아 목록을 만드는 과학참여활동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행사에는 육상 곤충과 수서곤충, 식물, 버섯, 어류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할 예정으로, 아간에는 반딧불 전문과학관 별자리 관측 프로그램과 토크 콘서트도 진행된다.

새벽에는 조류 탐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생물다양성 부스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경험할 수도 있다.

무주반디랜드 곤충박물관 민홍기 학예사는 "금강과 남대천을 기반으로 한 수생태계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반딧불이 서식지, 덕유산 등 무주가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알리고 체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생물에 관심이 많은 아이와 가족들이 참여하면 굉장히 뜻깊은 행사인 만큼 많이들 참여해 달라"고 전했다.

반딧불 생물다양성 탐사대작전(BioBlitz)의 행사 관련 정보와 참가 신청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www.bandil-bio blitz.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여행도 영화가 되는 진안의 명소 한 권에!

진안군, 종합홍보책자 진안고원여행 2000부 발간

진안군은 진안의 매력과 명소를 한 권에 담은 종합홍보책자인 '진안고원여행'을 발간했다.

책자는 최신 사진과 정보, 관광명소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했으며, 12.5cm X 20cm 크기의 약 130쪽 분량으로 2천부를 제작했다.

올해는 세계적 관광지인 마이산에 밀집된 관광명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첫 페이지에 '마이산 상세도'를 수록했다.

진안고원여행은 진안을 대표하는 △마이산 △용담호 △산·계곡 △길·꽃 △역사 △프로존 △관광코스 △축제 △진안홍삼 △농특산물 △체험 스티커정보 등 12개 테마별 분류

로 구축자 편의를 도모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담은 수준 높은 사진과 함께 설명을 곁들여 진안에 대한 흥미와 호감도를 높였다.

마지막 장에는 진안의 관광명소를 이미지 작업이 접이식 '진안군 관광안내도'를 첨부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왔다.

군은 방문객 안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 읍면에 배부하고 주요 관광명소, 종합관광안내소에도 비치해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교류행사나 관광객 유치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진장소방서, 호우·태풍 대비 긴급구조 대응태세 강화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3일 도내 일부 지역에 호우 예비 특보가 발표되고 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함에 따라 관내에도 호우·태풍에 대비하여 긴급구조 대응태세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이는, 도내 많은 비가 예상되고 산사태와 급경사지 붕괴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될 것으로 전망되어 무진장소방서에서는 선제적 긴급구조대응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호우·태풍 대비 긴급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관내 삼승 침수지역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현지점검 ▲수방장비 점검 등으로 100% 가동상태 유지 ▲기상특보 발효 시 대응강도 강화로 인해 선제적 대응 태세 ▲단계별 대책 수립으로 체계적 긴급구조 대책 마련 ▲현장대원 안전관리 최우선으로 무사고 대응 등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군, 추석 물가안정 캠페인

진안군은 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법상행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한국소비자연맹 진안군지부(지부장 김진옥) 회원 10여명과 전라산림과 직원들이 동참하여 진안고원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사재기, 끼워팔기 자제와 원산지표시제 이행을 독려했다.

군은 이번 캠페인 외에도 추석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특별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명기 전라산림과장을 반장으로 한 특별대책반은 추석 연휴기간 중 주요 성수품에 대한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바가지요금 등 불법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군은 전통시장 이용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인 오는 9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진안고원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기 전라산림과장은 "추석을 맞아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노력하는 한편, 많은 사람들이 진안고원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과 진안고원행복상품권 사용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로컬JOB센터 구인·구직행사

장수로컬잡센터와 전주지전대학산학협력단은 제13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에서 구직자에게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상담의 기회를 마련한다.

4일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구인·구직행사는 축제 기간인 9월 6일~8일까지 장수군 의암공원 일대에 마련된 장수군로컬잡센터 홍보운영부스에서 진행되며 관내 구직자 및 취업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해 구인과 구직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예정이다.

또 구인·구직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더욱더 신속한 일자리 전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숨어있는 구직자 발굴하고 고용촉진을 장려할 예정이다.

최민강 센터장은 "여러분 지역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구인·구직 만남의 기회를 수시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구직자를 발굴하고 구직자와 구인처와 알선을 통해 미스매칭을 줄여 지역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해 10월 전국 1호로 개소한 장수군로컬잡센터는 일자리 서비스 소외지역인 장수군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취업정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를 활용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양질의 구인·구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